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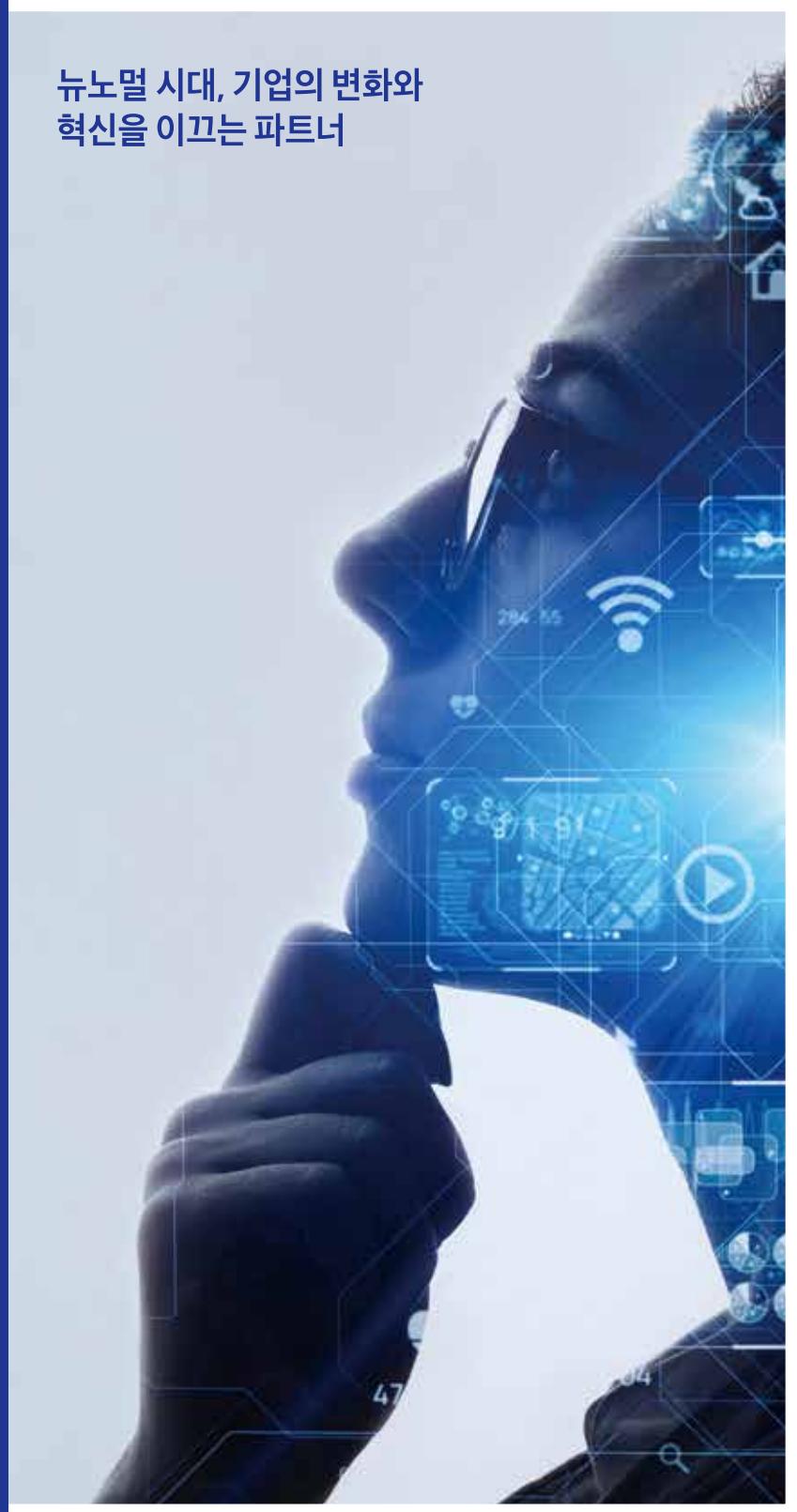
삼정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21
FEBRUARY
•
Vol.217

뉴노멀 시대,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파트너



cover story

뉴노멀 시대,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파트너

지난 1월, All Digital로 개최된 CES 2021에서는
디지털 헬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로봇과 드론, 차량기술,
5G, 스마트시티가 핵심 트렌드로 꼽혔습니다.

팬데믹 영향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뉴노멀의 시대, 기업들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력이 돋보인 전시회였습니다.

삼정KPMG는 전례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혁신을 주도하며 기업의 지속성장을 돋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04



16



20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CES 2021을 통해 본
미래 ICT 산업 트렌드

06 Team Story

ESG 전담팀

08 Client+

우리카드

10 Market Reader

ESG 경영, 지속가능한 세계와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의 해답

12 Expert's Advice

기업부동산 경영(CREM),
기업의 가치 높이는 법은?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15 KPMG Story

2021년 가장 실천하고 싶은
KPMG Value는?

16 인재양성소

'2021 신입 컨설턴트'가 말한다

18 삼정별그램

100세 시대,
삼정인의 건강 관리 노하우는?

20 Smart Play

"집에서 운동하자! 내 취미는 흠틈"

22 心 Care

코로나 시대의 필수, 마음 방역

24 세계는 지금!

EU 떠난 영국의 현재 상황은?

26 Samjong News

'최우수 회계자문' &
'Best M&A Accounting Advisor' 수상 外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 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5G, AI, 디지털 헬스케어에 주목 CES 2021을 통해 본 미래 ICT 산업 트렌드

세계 최대의 종합 ICT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1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All-Digital’이라는 슬로건하에 사상 최초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번 호에서는 CES 2021의 주요 이슈와 트렌드, 새로운 상품을 살펴보고, 미래 ICT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본다.



주요 키워드로 본 CES 2021, 5G, AI, 롤러블

이번 CES에서는 5G와 AI(인공지능) 등 기존에도 강조되던 기술 키워드가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에 나선 미국 통신사 버라이즌(Verizon)의 한스 베스트베리(Hans Vestberg) CEO는 ‘21세기 차세대 인프라-5G’라는 주제로 5G의 다양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소장품 50여 점을 고해상도 디지털 이미지로 스캔한 후 이를 5G 스마트폰으로 감상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보였으며, 태양계나 세포 속을 탐험하는 가상현실(VR) 활용 과학 수업,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CG 아바타 라이브 공연을 공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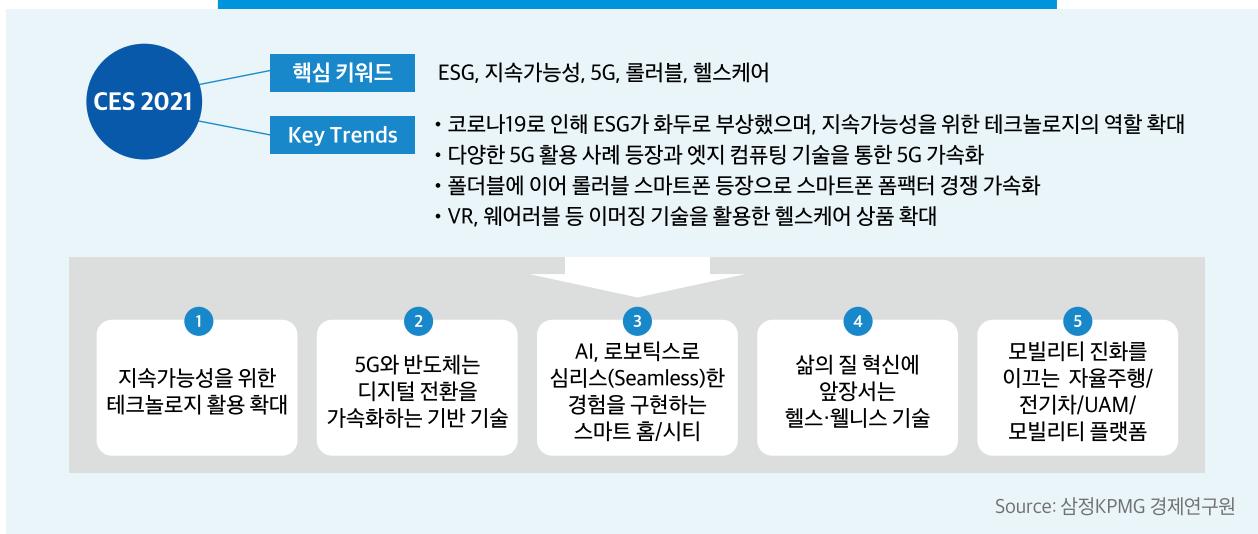
LG전자는 화면이 옆으로 늘어나는 방식의 롤러

블 스마트폰 티저 영상과 함께 AI 기술로 만든 가상인간 ‘김래아’를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LG 롤러블은 평상시에는 6.8인치 크기의 일반적인 스마트폰 모양이지만, 화면이 펼쳐지면 7.4인치의 대화면을 지닌 태블릿 형태로 변모한다. 이 제품의 공개로 롤러블이 폴더블에 이어 새로운 스마트폰 품팩터로 자리 잡게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음성인식 기능과 맞춤형 AI 기능을 탑재한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청소기 등을 선보여, 가전 제품과 AI의 결합이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흐름, ESG & 디지털 헬스케어

코로나19 때문에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된 CES 2021에서는 ESG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새로운 흐름으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는 업사이클링, 재활용 소재 사용 등으로 가전 제품의 생산과 유통, 폐기 전 과정의 친환경성을 강조했으며, 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비전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인 보쉬(Bosch)는 에너지 효율, 재생 에너지, 녹색 전기, 배출량 상쇄 등 4대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으며, GM은 교통사고 제로, 탄소 배출 제로, 교통체증 제로를 비전

CES 2021 트렌드와 이를 통해 본 미래 ICT 산업의 발전 방향



으로 제시하며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캠페인을 전개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방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가 공개됐다. 헬스케어 업체인 바이오인텔리센스에서는 체온, 심박 수, 호흡 등을 측정해 이용자에게 코로나19 징후를 알려 주는 웨어러블 기기를 공개해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LG전자는 코로나19 방역 관련 상품으로 전자 마스크를 선보였으며, 국내 벤처 기업인 엠투에스(M2S)는 VR 기술을 이용해 10가지 안과 검진이 가능한 제품으로 최고 혁신상을 받았다.

| 미래 ICT 산업의 발전 방향은?

이번 CES에서 강조된 지속가능성과 ESG는 앞으로도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이슈로 그 중요성이 계속해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ICT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테크놀로지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예컨대, 코로나19 연구를 위한 AI, 고성능 컴퓨팅 기술 활용 사례와 같이

새로운 기술을 ESG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스마트홈은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해 모든 기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끊김 없는(Seamless) 경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전망이다. 온도, 조명이 최적의 상태로 자동 조정되며, 사용자의 맥락에 맞춰 TV, 냉장고, 에어컨, 수도꼭지, 로봇청소기 등이 스마트하게 작동하는 시나리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헬스케어·웰니스 기술은 과거 실험적으로 연구되고 탐색되던 시기지만,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번 CES에 출품된 엠투에스의 VR 안과 진단 웨어러블 기기와 같이 새로운 기술과 헬스케어·웰니스와의 융합도 증가할 전망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의 발전 방향은 자율주행, 전기차, UAM(도심항공모빌리티), 플랫폼으로 집약된다. 미래 모빌리티에서 자율주행 시스템과 전기 동력은 기본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게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업계 재편이 가속화될 것이다. UAM, 자율주행차, 스마트 킥보드와 같은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며, 이들의 전환과 연계를 지원하는 모빌리티 플랫폼의 부상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5G와 반도체는 이러한 모든 ICT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기반 기술이자 인에이블러 역할을 맡아 ICT 산업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발행한 'CES 2021을 통해 본 미래 ICT 산업'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창출과 지속 성장 이끄는 국내 최초 ESG 전담팀

전 세계적으로 ESG(Environment-환경,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관심과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삼정KPMG는 국내 최초로 2008년에 ESG 전담팀을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ESG 시장을 개척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ESG 경영 체계 구축 관련 One-Stop 서비스를 제공 중인 ESG 전담팀을 만나본다.

美 바이든 대통령 ESG 정책 강력 추진, 국내외 ESG 시장 모두 고려해 경영전략 수립해야

전 세계적으로 ESG가 기업의 가치 극대화와 지속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국내 선도 기업들은 글로벌 Top-tier 수준의 ESG 경영체계 구축을 통한 ESG 경영성과를 창출하여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잡고자 한다.

하지만 실상 국내 기업들의 ESG 등급을 세계 글로벌 선도 기업과 비교해보면 상당한 갭(Gap)이 존재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 대비 ESG 경영 활동이 많이 늦었기 때문이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글로벌 선도 기업의 좋은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ESG 경영이 가능하다.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ESG 평가 결과를 잘 활용해 준비하면 우리 기업들 역시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 경영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ESG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전망으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비즈니스에도 ESG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ESG 관련 규제가 급증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ESG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ESG 관련 비즈니스 기회 역시 무궁무진하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국내 ESG 시장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ESG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신규 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어 경영전략을 수립해 가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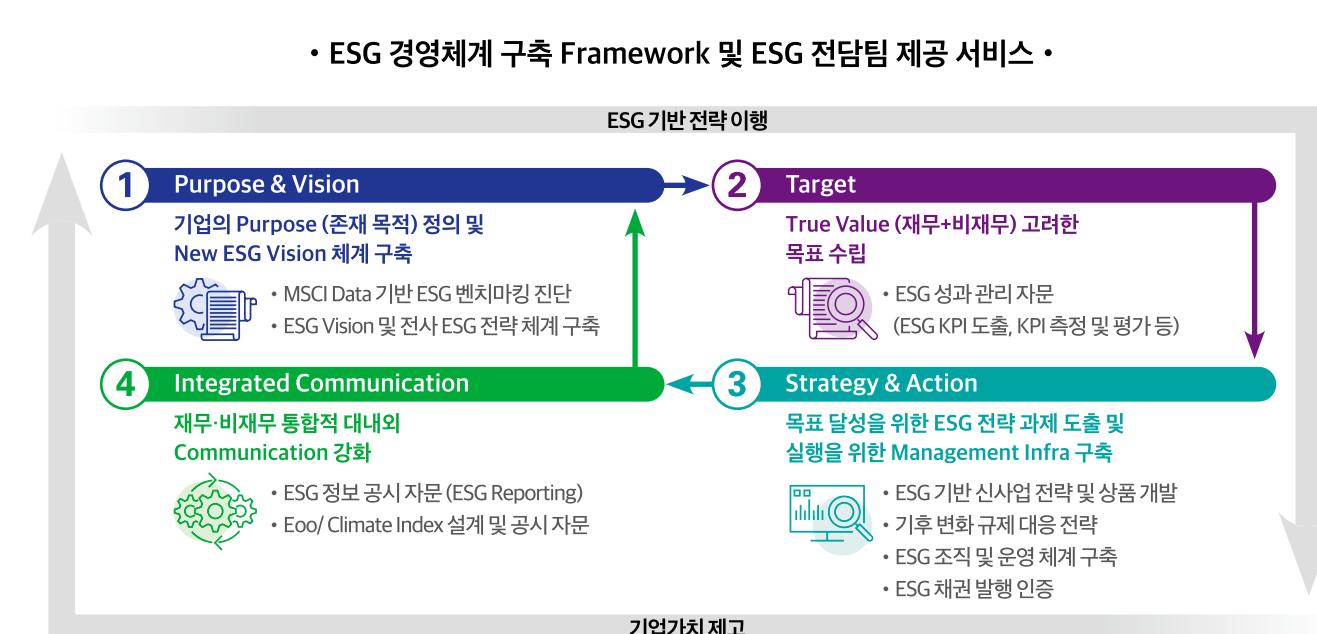
400여 이상 자문 경험 갖춘 ESG 경영 최고의 파트너

삼정KPMG는 국내 회계·컨설팅 Firm 최초로 2008년 ESG 전담팀을 신

설해 국내 ESG 시장을 개척해왔다. 현재는 모든 30명의 전략 및 오퍼레이션 전문가들의 독보적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ESG 분야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자문 역량을 보유한 팀으로 발전했다.

ESG 경영은 기업이 속한 산업과 내부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ESG 경영 자문 서비스가 중요하다. 이에 삼정KPMG ESG 전담팀은 기업의 니즈와 상황을 고려해 법인 내 회계, 재무, 전략 컨설팅 조직들과 One Team을 구성해 ESG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ESG 전담팀은 독보적인 경험과 데이터베이스를 갖췄다. 400여 건의 ESG 관련 프로젝트의 경험과 MSCI ESG가 평가하는 9,000여 개의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SK그룹, 삼성전자, 네이버 등 국내 굴지의 기업들의 ESG 경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ESG 전담팀은 더 큰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 모든 고객들에게 글로벌 최고 수준의 ESG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객들이 글로벌 Top-tier 수준의 ESG 등급을 받고, 궁극적으로는 기업가치 제고와 지속성장에 크게 기여하고자 한다.



INTRODUCE

‘ESG 전담팀’을 소개한다면?

이동석 전무 (팀 리더)

dongseoklee@
kr.kpmg.com



우리 팀은 구성원들의 탁월한 ESG 자문 역량과 독보적인 글로벌 ESG 데이터베이스로 우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ESG 성과 창출이 가능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김정남 상무

jungnamkim@
kr.kpmg.com



수년간 SK그룹 등 국내 선도 기업을 자문해오며 국내 ESG 시장을 선도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팀의 역량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최고의 역량을 갖춘 팀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문상원 이사

sangwonmoon@
kr.kpmg.com



지난 13년간 국내외 유수 기업들에게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한 전략 컨설팅을 수행해왔으며 최근 ESG팀에 합류하여 ESG 전략이 새롭게 결합된 ‘뉴 기업가치 극대화 모델’을 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혁신으로 내일의 가치를 만드는 카드, 우리카드

2013년 우리은행 신용카드사업부문에서 분사해 설립된 우리카드. 2021년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기회로 삼아 디지털 지급결제 금융사로 도약에 나섰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카드를 만나본다.



다양한 카드와 혜택으로 고객 마음 사로잡아

우리카드는 2014년 3월에 대표 신상품으로 '우리 가나다카드'를 6종을 출시했다. 이어 같은 해 8월에는 '우리 가나다 체크카드'를 선보이며, 출시 한 달 만에 15만 장 발급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2014년 10월 7일 한국능률협회에서 '한국 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체크카드 부문 1위'를 기록했다.

2017년에는 대표 신상품 '위비 할인카드, 위비 포인트카드'를 출시하고, 2018년 4월에는 '카드의정석'을 출시했다. 2020년 4월에는 이용금액의 1%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체크카드인 '네이버페이 우리카드 체크'도 선보였다.

2020년 10월에는 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바일 전용상품 '카드의정석 언택트 에어'를 출시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친환경 카드 '카드의정석 어스'를 출시했는데, 이는 지구(EARTH)를 생각하는 우리(US)라는 뜻으로 환경보호를 위한 착한소비 지원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카드의 의지를 담았다.

한편 우리카드 '카드의정석'은 2020년 11월, 출시 2년 8개월 만에 800만장을 돌파함으로써, 지난해 12월 11일 '제22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국내 최초 소셜 해외 ABS 2.7억 불 발행

우리카드는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도 2020년 4월, 프랑스 은행 인소시에테 제네랄을 단독 투자자로 해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미화 2억7000만 달러(약 3,300억 원 규모)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성공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최초로 1억 달러(한화 약 1,160억 원)의 포모사본드를 발행했다. 포모사본드는 대만 자본시장에서 외국기관이 현지 통화인 대만 달러가 아닌 다른 국가의 통화로 발행하는 채권이다.

지속적인 디지털 혁신으로 고객가치 실현 이뤄가

우리카드는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새롭고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20년 11월 홈페이지, 모바일 앱, 모바일 웹 3개 디지털 채널을 전면 개편했으며, 홈페이지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모바일 채널



1.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우리카드 본사 전경
2. '화훼농가 돕기 계립라 마켓' 현장
3. 좌측부터) 카드의정석 언택트 애어, 네이버페이 우리카드 체크, 카드의정석 어스
4. 임직원과 함께 한 사랑의 나눔 실천
5. '제22회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우리카드



은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Full Digital Service'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 채널 전반에 고객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주요 기능 27개를 도입했다. 'Full Digital Service'란 고객의 일상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금융 니즈를 간결하고 신속하게 디지털로 시작해서 디지털로 끝낼 수 있는 Digital End to End 체계를 의미한다. 상품 가입, 이용 관리, 자산조회 서비스 등 카드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디지털 채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이트와 디바이스에 관계없이 동일한 싱글뷰(Single View)로 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 사용자들의 경험 만족도를 높였다. 고객 로그인 시 개인별 맞춤 콘텐츠가 제공되며, 카드 신청 시 신청정보 자동 채우기(Fill-in), 신청서 중간 저장, 신분증 활용 가능 등 간결하고 편리한 신청이 이뤄지도록 했다. 업계 최초로 개별 카드마다 국내 가맹점 업종 제한을 설정하도록 하여 고객의 안전하고 계획적인 소비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우리카드 최근 마이데이터 예비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꾸

준한 DT(Digital Transformation)를 통해 상품 및 다양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고객 만족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사회공헌 활동으로 사랑 나눠

우리카드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우리카드 임직원 100여 명이 2020년 6월부터 약 3개월간 자발적인 참여로,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함께 걸어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총 1천만 원을 모금했고, 2020년 9월에 전동 휠체어 4대를 맞춤 제작하여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방위적 맞춤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유예를 제공하고 있고 영세·중소 가맹점 및 코로나 연계 업종에 대해 무이자 할부 등 금융 지원을 진행 중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화훼농가 돕기 계립라 마켓'을 진행했다. 서울 광화문 본사에서 열린 계립라 마켓에는 프리지아, 히아신스, 카랑코에, 툴립 등 600여 개의 꽃 화분을 준비했으며, 직원들의 성화에 힘입어 2시간여 만에 전량 판매된 바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12월에 임직원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된 마스크 1천여 개와 함께 김장 김치 500kg을 종로구 창신 제2동 주민센터에 기부했고, '밥상공동체 연탄은행'에는 연탄 6천 장을 기증해 저소득 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응원했다.

ESG 경영, 지속가능한 세계와 비즈니스를 위한 기업의 해답

“우리는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We will find a way. We always have.)” SF 영화의 수작으로 꼽히는 ‘인터스텔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구를 배경으로 한다. 정부와 기업,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인류는 환경파괴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종말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에서는 지구를 떠나 새로운 행성으로 전 인류가 이주하는 것에서 생존의 답을 찾고 있다. 현실의 인류는 어떠한 답을 찾을 것인가?



| 바야흐로 ESG 경영시대

2020년 코로나19의 대재앙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인류의 잘못된 관행이 인류를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자연에서 인간으로 옮겨온 이유도 생물 다양성을 무시한 서식지 파괴라는 분석이 나오는 등 코로나19 역시 인류의 과오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상생과 공존을 무시한 이기심은 결국 전체 시스템을 붕괴시켜 우리 스스로를 파괴시킨다.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재무적 이익에만 골몰하는 기업은 코로나19 이후 찾아온 새로운 현실(New Reality)에서 생존하기 어렵다. 이미 선도적인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등 비재무적 가치를 중시하는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고 있다.

| ESG 관점의 경영체계 설계와 주요 검토 사항

그렇다면 기업은 어떻게 ESG 경영을 준비할 것인가? 먼저 자사의 경영 체계를 ESG 기준에 맞춰 재정립해야 한다. 즉, 기업의 ESG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먼저 설계돼야 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전략 과제 도출을 위해 규제(Regulation), 파이낸싱(Financing), M&A, 기술(Tech), 기업 보고(Corporate Reporting)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각국 정부들은 ESG에 대한 권고를 넘어 관련 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 따르면 2013년 28개에 불과했던 글로벌 ESG 관련 신규 규제·정책은 2019년 203개로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25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등 ESG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또한 파이낸싱 측면에서 보면 ESG 요소가 자금조달·투자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ING, 프랑스의 BNP파리바 등 글로벌 대형 은행

중심으로 지속가능연계대출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주요 은행도 ESG 요소 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SG 채권 발행 및 펀드로의 자금 유입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글로벌 ESG 채권 발행 규모는 4,841억 달러(약 529조 1,200억 원)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M&A 딜 소싱과 밸류에이션 과정에서도 ESG 테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전기차 소재, 폐기물 처리 등 ‘환경’ 테마의 대형 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거래액 5,000억 원 이상의 국내 대형 M&A 중 40% 이상이 ESG 관련 M&A인 것으로 파악된다. ESG 선도 기업들은 딜 소싱 시 환경오염 유발, 사회갈등 야기, 경영진의 비위 등에 대한 기업 스크리닝(Screening)을 강화하고 있으며, 반환경적, 반윤리적, 비인도적 사업에 대한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에 ESG 요소를 접목해 기업이 직면한 비즈니스 혁신 및 사회·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한 예로 구글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개발(Advancing AI for Everyone)’이라는 슬로건하에, AI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기업 보고 시 ESG 요소의 중요성도 점차 커지고 있다. KPMG가 전 세계 52개국 5,200개 기업의 기업 보고 동향을 2020년 조사한 결과 국가별 매출 상위 100개 기업의 80%가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ESG 경영은 리스크 관리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Value Creation)하는 기업의 성장 동력이다. ESG 경영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핵심 어젠다를 선별하여 대응 전략을 민첩하게 내재화하는 기업이 미래 경영 환경에서 생존과 번영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삼정KPMG 공식 YouTube 영상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 O N T A C T U S

전략컨설팅리더 이동석 전무

Tel. 02-2112-7954
E-mail. dongseoklee@kr.kpmg.com



경제연구원 임두빈 수석연구원

Tel. 02-2112-7469
E-mail. doobeenyim@kr.kpmg.com

ESG 경영 환경하에서 기업의 주요 검토 사항



기업부동산 경영(CREM), 기업의 가치 높이는 법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경제구조와 산업구조 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사업 모델을 재점검하고 이와 연계된 전략적 기업부동산 경영
(Corporate Real Estate Management, CREM)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성공적인 기업부동산 경영을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전략은 무엇일까?
삼정KPMG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성공하는 기업부동산 경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기업부동산 경영(CREM)이란 무엇인가요?

기업부동산 경영(Corporate Real Estate Management, CREM)은 기업부동산 자체에 대한 경영관리를 넘어 기업 사업·경영 관점에서 부동산의 취득, 운영, 처분, 임대, 임차, 개발 등을 포함한 포괄적 부동산 관련 경영 활동을 의미합니다. 기업부동산 경영은 기업의 수익성, 자산 효율성, 안정성, 성장성에 영향을 주며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개별 부동산 가치의 극대화가 아닌 기업가치 극대화를 목적으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Q2 글로벌 기업은 현재 어떤 기업부동산 경영 전략을 취하고 있나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조직과 자산 확대, 사업영역과 지역확장에 따라 전사적 관점의 기업부동산 경영 노하우를 축적하며, 관련 부서를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하고 권한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KPMG가 글로벌 기업의 기업부동산 경영 부서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 기업의 31%가 기업부동산 경영 부서를 독립된 부서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73%가 과거 3년 대비 기업부동산 경영 부서 권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의 아마존은 1990년대 후반부터 선제적으로 사업 전략 확장을 위해 글로벌 전역에 물류 부동산 투자를 이어 왔으며, 그 결과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를 실현하며 유

통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IT 기업도 브랜드 가치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신사옥 확장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Q3 성공적 기업부동산 전략 실행을 위해 우리 기업은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성공적 기업부동산 전략 실행을 위해서는 기업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부상, 디지털 전환, GVC 재편 등을 고려해 사업전략을 재정립하고 이와 연계된 기업부동산 경영 전략을 전사적 관점에서 마련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동산 경영 관련 부서나 인력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부동산의 취득부터 개발, 운영관리, 처분까지 복합적인 관점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과 협력하며 파트너십을 가지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Deal Advisory 4본부 서광덕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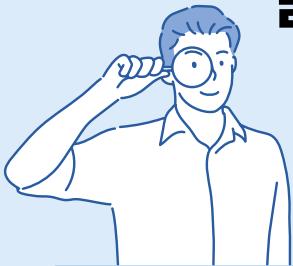
Tel. 02-2112-0170

E-mail. kwangdukseo@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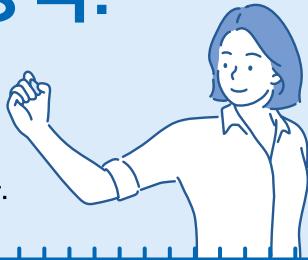
<이 칼럼은 삼정KPMG
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삼정인
사이트 72호 '기업부동산 경영
(CREM), 기업의 가치를 높여라'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최신 정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우후죽순 생겨나는 새로운 신조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트렌드와 흐름에 맞춰 탄생한 신조어를 소개해본다.



인스피리언스족



실내를 의미하는 '인도어(Indoor)'와 경험을 뜻하는 '익스피리언스(Experience)'의 합성어로, 실외에서 하던 경험을 실내에서 즐기는 사람들을 뜻한다. 인스피리언스족은 집을 단순한 휴식의 공간에서 새로운 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확장하는 소비자층으로, 헬스장을 방문하는 대신 헬스 기구를 집 안에 구비해 홈트레이닝을 즐기거나 영화관을 가는 대신 홈시어터 제품을 구매해 집에서 영화를 즐긴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무엇보다 집안에서 활동을 즐길 경우 외부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신경 써야 하는 요소가 적고, 더 안락하므로 인스피리언스족이 늘어나고 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인플루언서블 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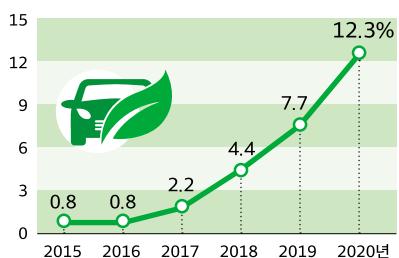
인플루언서블이란 Influence와 able의 합성어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이라는 의미이다. 인플루언서블 세대는 자신의 영향력을 알고 행동하며 변화를 만드는 세대다. 즉, SNS에 올린 글 하나가 사회 변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고, 개인의 소비 활동이 기업이나 브랜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는 MZ 세대를 대표하는 키워드이다. MZ 세대는 연예인과 같은 인플루언서처럼 행동하는데 거리낌이 없다. 일례로 SNS에 #협찬환영 태그를 단다거나, 자신의 생일이라며 기프티콘 이벤트를 열기도 한다.

친환경차 수출 비중 추이, 전년 대비 39.9%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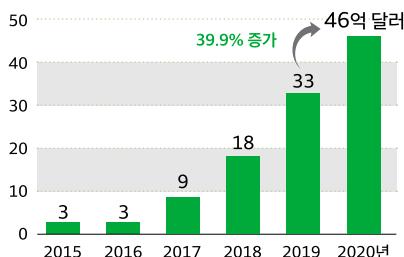
지난 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0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수출액은 46억 달러로, 전년의 33억 달러보다 39.9% 급증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가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3%로 집계됐다.

◆ 친환경차 수출 비중 추이 ◆

전체 자동차 수출액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



◆ 친환경차 수출액 추이 ◆



자료: 산업통산자원부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KPMG Story

2021년 가장 실천하고 싶은 KPMG Value는?

인재양성소

‘2021 신입 컨설턴트’가 말한다

삼정별그램

100세 시대, 삼정인의 건강 관리 노하우는?

Smart Play

“집에서 운동하자! 내 취미는 홈트”

心 Care

코로나 시대의 필수, 마음 방역

세계는 지금!

EU 떠난 영국의 현재 상황은?

Samjong News

‘최우수 회계자문’ &

‘Best M&A Accounting Advisor’ 수상 외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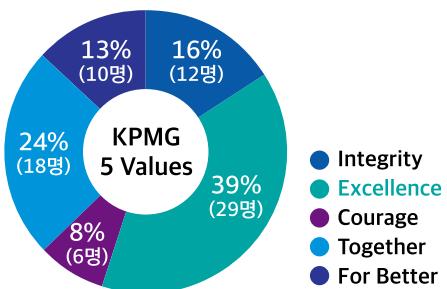
2021년 가장 실천하고 싶은 KPMG Value는?

삼정인은 어떤 Value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2021년 'KPMG Story'에서는 '일상에서 가치를 찾다'라는 주제로 삼정인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KPMG Value에 대해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 삼정인이 가장 실천하고 싶은 Value에 대해 물어봤다. 삼정인이 가장 실천하고 싶은 Value는 무엇인지 들어보자.



삼정인이 뽑은 올해 가장 실천하고 싶은 Value는? *'Excellence'!*

삼정인들은 올해 가장 실천하고 싶은 KPMG 5 Values로 'Excellence'를 뽑았다. 총 75명이 참여한 이번 이벤트에서 Excellence가 39%를 차지했으며, 이어서 Together 24%, Integrity 16%, For Better 13%, Courage 8%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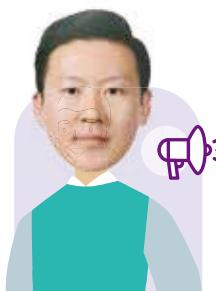
2021년, KPMG 5 Values 어떻게 실천하고 싶나요?



김주현 Associate
(Domestic Ta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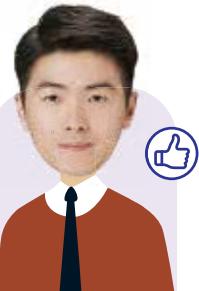
한동훈 Manager
(Deal Advisory2)



마영준 S.Consultant
(MCS2)



안충현 Associate
(IM4)



나환진 S.Analyst
(Deal Advisory5)

"저는 전문가로서, 올바른 일을 이뤄가고 싶은 마음에 올해 목표와 방향성을 'Integrity'로 선정하게 됐어요!"

"고객보다 한발 앞서 움직이고, 전문가로서 넓은 시야와 인사이트를 갖추기 위해 올해는 'Excellence'를 더욱 강화하고 싶어요."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한 해였기에, 올해는 팬데믹 상황을 넘어서 'Courage' 있게 진취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자 해요!"

"저는 올해 'Together'라는 가치를 마음에 새기고 싶어요. 다양한 팀원들과 서로 조화롭게 협업을 이뤄 회계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비재무적인 가치가 중요한 요즘, 저는 'For Better'의 가치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바탕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할 계획이에요."



'2021 신입 컨설턴트'가 말한다 “나는 _____ 이다!”

나는 행동하는 실천가이다!

“삼정KPMG 발전에 기여하고파”

저를 소개하자면,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과 흥미로 비롯된 행동력으로 많은 것을 시도하고 배웠어요. 음악, 커피, 요리, 칵테일, 운동 등 여러 가지를 배웠고, 대학생 때는 창업도 경험해봤어요. 그러다 군 복무 시절 자본에 대한 호기심으로 회계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죠. 이 덕분에 삼정KPMG 컨설턴트가 될 수 있었어요.

삼정KPMG는 입사 전부터 지인을 통해서 인재를 소중히 여기는 곳이란 걸 알고 있었고, 구성원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모습에 감명받았어요. 그래서인지 삼정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매우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빠르게 배우고 성장하여, 삼정KPMG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요!



나는 스펜지 같은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삼정인으로”



저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 중국, 홍콩, 멕시코 등 다양한 해외 경험을 했고, 낯선 환경과 문화에 꾸준히 노출되면서 변화를 즐기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홍콩에서 보내며, 가장 처음 사회생활을 경험한 곳이 바로 KPMG 홍콩이었어요. 당시 팀원들의 도움으로 사회인으로서 첫 단추를 잘 채웠고, 그 영향으로 삼정KPMG에 입사하게 됐어요. 무엇보다 Digital본부가 별도로 운영되어, IT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앞으로 저는 제 성격을 표현하는 스펜지처럼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를 습득하고, 스펜지에 물감을 묻혀 다채로운 페인팅을 하듯 고객에게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요.

삼정KPMG는 40명의 신입 컨설턴트를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했다.
신입 컨설턴트들은 'Trusted Advisor'가 되기 위해 1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입문 교육에 참여했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KPMG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입 컨설턴트를, 본부별로 대표 인터뷰이를 선정해 만나봤다.



나는 **매일 발전하는 사람**이다

“나무처럼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싶어”

저는 매일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과 관계를 더 잘 유지할지’ 등을 고민하고 스스로 답변도 하며 한 단계씩 성숙해지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매일 조금씩 쌓여가면 스스로 성장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이런 기분이 좋아서 더 노력하게 돼요. 이처럼 매일 발전을 이루고 싶은 저에게 삼정KPMG는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회사라고 생각했어요. 컨설팅부문이 빠르게 성장 중이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가 너무나 좋았어요. 앞으로 저는 신선한 공기와 그늘을 제공하고, 때론 원독이 되어 가구가 되는 나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삼정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은 사람**이다!

“전략 컨설팅계의 르네상스맨 될 것”



저는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할 당시, 보컬부터 프로그래밍까지 다양한 수업을 들었고, 취미로 전시회를 자주 보러 다녔어요. 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제게 컨설턴트는 제 바람을 잘 이뤄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했죠. 다양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제 역량을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삼정KPMG는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주는 조직 문화가 잘 형성된 곳이라 지원하게 됐어요. 실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멘토님과 팀원분들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에 ‘아! 삼정KPMG에 입사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저는 어떠한 프로젝트에 투입되더라도 그에 맞춰 제 능력을 발휘하고, 선배들과 소통하며 능력을 키워가 전략 컨설팅계의 르네상스맨이 될 거예요!

100세 시대, 삼정인의 건강 관리 노하우는?

한 살이 더해진 2021년, 건강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시기이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일상에서의 건강한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삼정인들만의 건강한 삶의 비결을 들어본다.



홈트레이닝과 등산으로 활동량 UP!

한채민 Consultant (MCS2)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적어진 요즘,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운동을 해요. 홈트레이닝 앱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가끔은 등산을 가서 눈 호강도 하고 맑은 공기를 마음껏 마시기도 해요. 매우 힘들 때도 있지만, 완등했을 때의 뿌듯함과 멋진 광경이 등산의 매력인 것 같아요!

#홈트 #등산
#활동량 증진



...



내 몸의 변화 기록하며
확인하며!

김유학 S.Analyst (Deal Advisory6)

저는 운동과 식이요법 중에 식이요법을 통해 신체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선, 일일 권장 칼로리를 2,500Kcal로 책정하고 매일 먹는 음식을 앱에 기록하고, 칼로리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인바디 결과를 매달 기록했죠. 2020년 7월부터 시작한 결과 2021년에는 몸무게도 많이 줄고 골격근도 늘어났어요. 기록하며, 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다 보니 재미도 붙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 운동으로
상쾌하게

박상현 Consultant (SCG2)



제 건강을 위한 노력은 아침 운동이에요. 저는 집에서 15분만 걸어가면 석촌호수가 있어 매일 아침 준비 운동 후에 걷거나 뛰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저녁이 되면 자꾸 변수가 생겨 운동을 거르는 빈도수가 높은데, 아침에 운동을 하면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



**규칙적인 생활과
영양제로!**

김은아 Associate (IM4)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습관은 뭐니 뭐니 해도 규칙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업무가 가중되는 시즌에 회계사로서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잦은 야근에 밤낮이 뒤바뀌기도 하니까요. 때문에 더욱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해요. 저는 비타민D, 루테인, 유산균, 비타민C, EpiCor, 양배추환을 챙겨 먹고 최근에는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해져서 한의원에서 한약도 지었어요. EpiCor는 맥주효모추출물인데, 비염에 좋다는 얘길 듣고 직구해서 한 달 넘게 꾸준히 복용 중이에요. 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비염러에게 추천해요. 다들 몸에 맞는 영양제들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영양제로 건강 관리를



**평범하지만
건강을 위한 노하우**

이지은 부장 (회계팀)

저만의 건강 루틴을 공유해봅니다.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둘, 매일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셋, 야채와 과일을 매일 섭취하고 야식은 금지! 넷, 자연과 함께 만 보를 목표로 1~2회 힐링 걷기! 사실 특별한 건 없지만, 꾸준히 지키면 좋을 평범한 방법들입니다. 이외에도 올해는 추가로, 밀가루 섭취를 줄여보려고 해요!



**몸 건강에서
멘탈 건강까지**

문여명 Associate (ICE1)

아침에 30분 정도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요. 햇빛을 거의 보지 못하기에, 비타민D를 하루에 5,000IU씩 먹고요. 또, 하루 종일 앉아서 생활하기에 점심, 저녁 식사는 포만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먹어요. 또한, 멘탈 관리를 위해 항상 낙 탓하지 않고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스트레스가 줄어들더라고요. 시즌 중에 부족한 지식으로 무너진 자존감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며 회복한답니다! 하하.



커피 대신 발포 비타민을!

조예림 인턴 (ICE1)

출근하자마자 피곤함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지니다가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신체 활동성을 떨어트린다는 기사를 보고 점차 줄이게 됐어요. 그러던 중, 어떻게 하면 커피를 마시지 않더라도 피곤함을 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발포 비타민을 접하게 됐어요. 물에다가 발포 비타민을 타서 먹으니 자연스레 하루 음수량도 늘어났고, 비타민C의 효과로 피로함도 사라지는 효과를 얻었어요. #커피 Down #비타민 UP



Domestic Tax2 최규재 Associate

“집에서 운동하자! 내 취미는 홈트”

새롭게 시작하는 ‘Smart Play’는 삼정인들의 취미 활동을 공유하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꿀 팀을 얻을 수 있는 칼럼이다. 첫번째 순서로, 홈트레이닝(이하 홈트)으로 건강 관리 중인 최규재 Associate를 만나본다.

| 코로나로 확찐자, 홈트로 극복

산스장, 공스장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 이 단어는 산 혹은 공원과 헬스장의 합성어로 코로나19로 인해 헬스장 방문이 어려워 산과 공원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생긴 용어다. 또 한 코로나 여파로 집에서 운동을 즐기는 홈트족도 늘었다. 운동을 좋아하는 최규재 Associate도 주5일 정도 홈트를 한다고 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헬스장이 폐쇄되기도 하고, 또 오픈을 하면 밤 9시까지만 운영하고 있으니, 사실상 근무를 하다 보면 시간이 늦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이러다가 내가 확찐자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유일무이한 취미인 운동을 집에서 해보자 마음먹었죠.”

홈트를 시작한 최규재 Associate는 케틀벨과 중량 조끼를 이용한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특별한 운동 루틴이라고 할 건 없지만, 케틀벨을 활용해 케틀벨 스윙도 하고, 케틀벨 컬, 케틀벨 원암프레스 그리고 중량 조끼를 입고 푸쉬업을 하고 고블린 스쿼트 등을 하고 있어요. 집에 철봉이 없는 관계로 등을 제외한 전신에 부하를 주는 운동 루틴으로 구성했죠.”

1인 가구 자취생에게 가장 효율적인 홈트 장비가 중량 조끼와 케틀벨이라고 한다. 가장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여러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중량 조끼를 입으면 푸쉬업, 스쿼트 동작 시 신체에 더 큰 부하를 줄 수 있고, 케틀벨은 스윙을 통해 심폐지구력과 코어 근육, 협응력 등 다양한 신체요소를 향상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이에요.”



홈트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져! 삼정인에게는 ‘케틀벨 스윙’을 추천

“홈트를 시작하면서 언제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헬스장이 문을 닫든, 업무상 늦게 퇴근하든 상관없이 집에서 잠깐이라도 케틀벨 스윙을 하고 자면 기분 좋게 잠들 수 있죠.” 무엇보다 홈트를 통해 몸도 마음에도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다. 심폐 지구력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던 최규재 Associate는 케틀벨 스윙을 시작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체력이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집중력도 향상되어 일상 스트레스도 감소되었단다.

장시간 노트북 앞에서 씨름하는 삼정인에게도 케틀벨 스윙을 추천했다. “이 운동은 버피테스트처럼 힘들고 하기 싫은 운동이 아니에요. 케틀벨 스윙은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흥미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고, 코어 근육을 포함한 전신의 근육 강화와 신체 협응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돼요! 동작이 크고, 사용하지 않은 근육 없이 고루고루 부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더욱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홈트, 재미를 느끼며 지속해야!

최규재 Associate는 홈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미와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운동이 즐거워서 홈트가 즐거운 것 같아요. 체력향상을 통한 집중력과 끈기도 키울 수 있어서 운동의 매력에 더 빠지게 된 듯해요. 다른 삼정인 분들도 홈트를 너무 힘들게만 시작하지 않고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루하루 지속하다 보면 꾸준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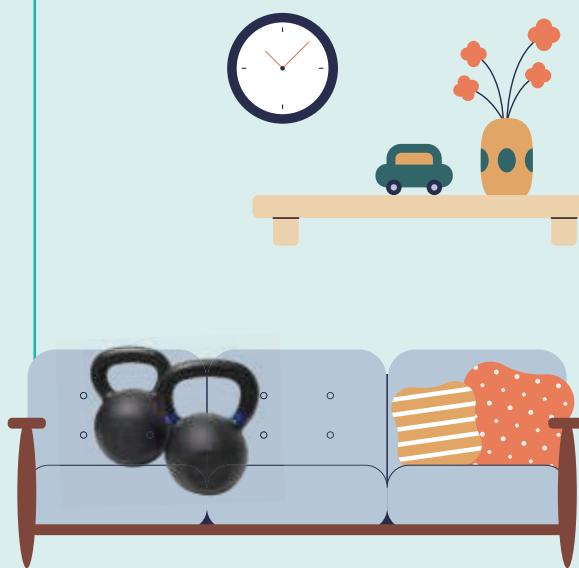
최규재 Associate는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양한 운동을 배우고 즐기고 싶은 소망도 내비쳤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다양한 액티비티를 많이 즐기고 싶고 또 즐거운 운동을 많은 동료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요!” 그의 바람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닐까? 하루 빨리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모두 운동하며 더욱 건강해질 그 날을 기다려본다.



최규재 Associate가 추천하는 홈트 영상

홈트로 추천하고 싶은 영상을 두 가지 종류로 소개하자면, **첫째로, 홈트로 할 운동을 알려주는 영상입니다.** 저는 주로 케틀벨을 통한 홈트를 하기 때문에 케틀벨 관련된 영상을 봅니다. 추천하고 싶은 유튜브 영상으로는, 유튜브 ‘**닥터스핏**’이 있습니다. 해당 채널은 주로 케틀벨을 이용한 훈련을 다루고, 운동 중 부상을 피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알려줍니다.

둘째로, 홈트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영상입니다. 집은 헬스장처럼 운동할 분위기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운동 욕구를 북돋는 영상과 음악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빠르고 경쾌한 음악과 운동하며 땀 흘리는 영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튜브 ‘**말왕**’ 채널의 오늘의 운동 영상들이나 엘리트 운동선수들이 땀 흘려서 운동하는 영상들을 틀어 놓고 운동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필수, 마음 방역

COVID-19(이하 ‘코로나’)로 인한 일상의 부재는 많은 이들에게 근심과 걱정을 안겨준다.

이번 호에서는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를 통해 코로나에서 비롯된 일상 속 스트레스에 보다 건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들어본다. 글.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일상의 변화를 겪은 지 만 1년이 넘었다. ‘언제 밥 한번 먹자’는 인사말이 ‘코로나 끝나면 한번 보자’는 말로 대체되었다는 우스갯말이 생겼다. 지난 2020년에 직장인 상담실에서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함께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자꾸 부딪히게 되네요’와 같이 ‘코로나 때문에’라는 말이다.

코로나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취미 및 여가 생활에 제한되는 것이 많다 보니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창구가 줄어들었다. 예전 같으면 취미 생활 등을 통해 바로 풀고 넘어갔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스

가 계속해서 누적되니, 개인 마음 건강에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 지금은 마음 방역이 필요한 시기

코로나 감염에 대한 방역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음 방역이 필요하다. 언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를 넘어선 ‘코로나 레드(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울이나 불안 등의 감정이 분노로 폭발하는 것)’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제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단편적 방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마음 방역이 필요하다. 이에 필자는 코로나 상황에서 비롯된 스트레스 특성과 갈등에 대해 살펴보고, 아직 우리에게는 낯설기만 한 이러한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 행복연구센터의 ‘코로나19 시대 우리는 어떤가(How are we during COVID-19)’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코로나

전후 행복 변화의 폭(well-being index)을 측정했는데, 여러 요인에 따라 행복 변화의 폭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한다.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2~30대의 젊은 연령층이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겪었다고 한다. 연구팀에 따르면, 중장년층은 나이가 들면서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인지 재구조화(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 방략을 많이 택하게 되나, 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지루함이라는 감정을 강하게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보다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더 힘들어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사회적 만남이 차단되는 것이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로 느껴졌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심리 상담 현장에서도 각 개인이 가진 특성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를 다르게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자극과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제약된 생활을 답답하고 힘들게 느낀다. 한편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사회생활에서도 불안감, 위축감을 느낀다. 기본적으로 직장이나 가정, 가까운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들은 ‘서로 간의 차이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안 그래도 다른 점들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또 서로 간의 이해와 기준이 달라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마다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색채와 강도도 달라지기에 ‘왜 이 정도의 스트레스도 감당하지 못하냐’고 상대를 비난하기에 앞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 마음 방역을 위한 Tip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익숙해진 우리는 감염 예방을 위해 기본적인 위생수칙과 더불어 규칙적 생활 패턴과 영양, 수면 등에 골고루 신경써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추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정신 건강 측면에서 많이 지친 이들을 위해 마음 방역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한다.

첫째, 제한된 조건 안에서 지루하고 단조로운 상황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스트레스 수치가 많이 달라진다. 특히 외부 활동이나 만남, 신체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주로 해소했던 사람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상호작용, 운동방식을 잘 활용해보자. 비대면 만남이나 홈트레이닝 등 시도해보지 않았던 방식에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지루함을 많이 해소해준다.

둘째, 각자 내면에 가진 ‘심리적 유연성’을 발휘하자. 모두가 불확실한 상황을 겪어가고 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상황을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다. 원하지 않는 사회적 상황, 확실하지 않은 미래, 예전처럼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반발하기보다 이를 수용하자. 그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재택근무 혹은 비대면 업무에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모두가 낯선 업무 형태에 차분히 적응해왔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대처해왔음을 떠올리며, 자기 내면의 힘을 믿어주기를 권한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정신보건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에서 상담, 위기 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정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EU 떠난 영국의 현재 상황은?

2021년 영국은 48년 만에 유럽연합(EU)을 떠나 홀로서기에 나섰다.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이후 47년간 지속되어온 유럽과 영국의 동거 관계가 지난해 12월 31일이 비로소 막을 내렸다. 홀로서기에 나선 영국 상황을 Global Mobility Program으로 KPMG 영국 런던 Office에 파견 중인 허예상 S.Manager를 통해 살펴본다.

글. KPMG 영국 런던 Office 허예상 S.Manager

E-mail. YeSang.Heo@kpmg.co.uk / Tel. +44 203 3064618



EU 완전히 떠난 영국, 어떤 합의로 이뤄졌을까?

지난 2016년 6월 23일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영국 유권자의 약 52%가 찬성표를 던지며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시작됐다. 그 후 영국과 유럽연합(EU)은 무역협정을 포함한 미래관계 협상을 지속해온 끝에, 2020년 12월 24일 마침내 그 합의를 이뤄냈다. 이로써 영국은 EU를 완전히 떠나게 됐다.

영국은 EU의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을 떠났지만, 합의안에 따라 여전히 무관세·무쿼터로 EU와 무역할 수 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어업권은 영국의 양보로 향후 5년 6개월 동안 영국

해역에서 EU의 어선의 어획량을 25% 감축할 것으로 합의됐다.

이외에도 이번 합의안을 통해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공통의 법적 구속력 있는 원칙에 합의했다. 이 원칙은 양측 법원에서 집행 가능하며, 불법 보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브렉시트 이후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해 재균형 메커니즘(rebalancing mechanism)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독립 중재 절차가 포함되며, 불이익을 본 측에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보에서도 영국은 더 이상 유럽사법협력기구, 유럽경찰청 회원국은 아니지만 양측 경찰과 사법 당국 간 협력에 따라 영국과 이들 기구 사이의 협력을 지속될 예정이다.

브렉시트가 영국인들의 생활에 미칠 영향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인들은 더 이상 EU 내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없게



1 2

1. 런던 근교 옥스포드 여행 중

2. 영국을 대표하는 타워브리지 앞에서 본부 여자 동료들과 함께

된다. 유럽 내 국가로의 이주 및 여행 시 까다로운 절차가 늘어날 것으로 이에 대한 영국인들의 적응이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EU 회원국 입국 시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나 브렉시트 시행 이후 영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 과정이 대폭 추가된다. 이제 영국인들은 EU 회원국에서 해당국 시민처럼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을 하거나 거주할 권리가 사라진다. 영국인들이 EU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체류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다만 EU 소속 국가인 아일랜드로의 여행은 EU 규정과는 별도로 영국과 아일랜드 간 공동여행지역협정에 따른 것이므로 기준대로 유지된다.

영국인들이 EU 회원국 내에서 운전할 때 영국 운전면허가 인정됐으나,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반드시 별도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해야 한다. 유럽 건강보험카드를 발급받은 영국인이 EU 국가 체류 시 해당국 가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었던 혜택도 종료된다.

변종 코로나로 힘든 영국, 오는 2월 중순까지 1,400만 명 백신 접종 목표

영국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영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40개국 이상이 영국발 입국을 금지했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영국발 여객 및 화물 입국 금지 조치로 2020년 12월 22일까지 3일간 영국 남부 소재 핵심 항구인 도버항에서 대규모의 물류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사람들의 혼란과 불안 증가로 인해, 2020년 3월 중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 생필품 사재기 현상 또한 다시 발생하고 있다. 다행히 2020년 12월 23일 오전부터 도버항에 계류된 물류 및 화물의 이동이 재개되었으나, 영국인들의 불안감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1월 4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잉글랜드 지역에 3차 봉쇄조치 도입을 발표했으며, 다음 달 15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3차 봉쇄조치를 시행할 경우 영국 지역의 모든 국민은 집에 머물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며, 식당은 계속 영업을 정지하되 포장과 배달은 허용한다. 코로나19 경보 단계도 보건 서비스의 수용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인 가장 높은 5단계로 격상된 상황이다.

한편, 영국은 세계 최초 코로나 백신 접종국으로 접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240만 명이 주사를 맞았으며, 오는 2월 중순까지는 약 1,4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을 계획이다.

KPMG 영국

KPMG 영국의 Audit 부서는 크게 Financial Service, National Market 및 Corporate로 나뉜다. 한국에는 금융회사 감사본부를 B&F(Banking & Financial) 1, 2, 3으로 나누지만, KPMG 영국은 FS를 현재 필자가 속한 Insurance를 포함, Banking, Asset Management, Pension 등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Audit과 Non-audit 부서를 명확하게 나누어, Audit 본부 소속일 경우 1년 내내 감사업무만을 수행한다. Non-audit 부서는 회계 자문을 수행하는 Accounting Advisory Services, 기준서 변경 프로젝트(ex. IFRS17 프로젝트)를 맡는 Financial Transformation 부서 등이 있다. 필자는 그 중 FS Audit Insurance 부서(보험회사 감사본부) 소속으로, 보험회사 감사팀 In-charge를 맡고 있다.

KPMG 영국의 Financial Service

Insurance 소속으로, 보험회사

감사팀 In-charge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곳에서 느낀 점은

영국 회계사들 역시 뛰어나지만,

영국과 성실향에서는 한국

회계사가 더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장점을 해외 여러 Office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보자’라는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KPMG 영국 런던 Office
허예상 S.Manager

Samjong News

‘최우수 회계자문’ & ‘Best M&A Accounting Advisor’ 수상



삼정KPMG Deal Advisory 구승희 대표(우측)가 ‘제18회 대한민국 IB 대상’에서 ‘최우수 회계자문’을 수상한 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좌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정KPMG가 유수 언론매체에서 최우수 회계자문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월 21일 개최된 머니투데이 ‘제18회 대한민국 IB 대상’에서 ‘최우수 회계자문’을 수상했고, 1월 27일 진행된 더벨 ‘2021 League Table Awards’에서는 ‘Best M&A Accounting Advisor’로 선정됐다.

삼정KPMG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전체 M&A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에서도 총 71건, 18조 1,888억 원의 자문실적을 기록하며 M&A 시장에서 가장 많은 회계자문을 수행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M&A 시장에서 가장 주목됐던 환경관리업 섹터의 주요 거래에도 모두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 섹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2020년 부실채권(NPL) 매각 자문 1위

삼정KPMG가 지난 2020년 총 1조 1,939억 원의 부실채권(NPL) 매각 자문을 수행하며 2020년 NPL 매각 자문시장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대비 8,537억 원 증가한 수치로, 기업은행 발 NPL 물량을 대거 자문하며 1위 발판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산업은행, 경남은행, 하나은행 등 다수의 NPL 매각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NPL 매각 자문 시장에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IRM 본부, IT Audit으로 본부명 변경

2021년부터 삼정KPMG IRM(Information Risk Management) 본부명이 ‘IT Audit’으로 새롭게 변경된다. KPMG Global에서 IRM의 본부명을 IT Audit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으며, 삼정KPMG 역시 IT Audit이 현 IRM의 역할 및 수행 업무를 더 잘 표현한다고 판단해 본부명을 변경하게 됐다. 한편, IT Audit은 Audit Quality의 향상에 보다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KPMG, ESG 목표 통합한 ‘임팩트 플랜’ 발표



지난 1월 27일, KPMG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를 하나로 통합한 임팩트 플랜(Our Impact Plan)을 발표했다. 임팩트 플랜은 지구(Planet)·임직원(People)·번영(Prosperity)·지배구조(Governance)의 4대 범주에 초점을 맞췄으며 KPMG가 세운 첫 번째 ESG 계획이다. 임팩트 플랜은 국제기구들과 세계경제포럼(WEF)의 측정지표를 반영한 다양한 보고서들의 데이터들을 집대성한 것으로, WEF의 측정지표에 관한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제시한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와 협업했다. KPMG는 ‘임팩트 플랜’에 포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기능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KPMG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중립(Net Zero)’ 조직을 선언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KPMG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행동계획에 따라 직장 내 다양성과 평등에 대한 목표를 정한 바 있다. 번영 범주를 위해서는 유네스코(UNESCO)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학습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돋는다. 기업 고객의 지속 가능성을 향한 ESG의 제 수립도 지원한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지난해 글로벌 행동 강령을 보강한 것은 물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표를 만들기 위한 WEF·IBC와의 협업을 포함해 ESG 측정기준을 반영하는데 전문지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제2회 KPMG 아이디어톤’ 설명회 진행



삼정KPMG가 지난 1월 29일 ‘제2회 KPMG 아이디어톤’ 설명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제2회 KPMG 아이디어톤’에는 총 31팀, 183명의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지원했으며 이 중 13팀, 총 70명이 서류심사를 통해 설명회에 참여했다. 설명회에서는 대회 진행 방식에 대한 안내와 Q&A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 삼정KPMG, 데이콘, AWS 전문가들이 나서 해커톤과 AWS 클라우드 활용 사례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국내 결선은 2월 22~23일 이틀 간 진행될 예정이다. * Contact: PPC 김민영 직원 mkim71@kr.kpmg.com

NOTICE

‘2021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 주제 새롭게 개정되는 세목별 주요 개정 내용 및 배경, 입법취지 안내
- 일시 2021년 2월 17일(수) 14:00 ~ 17:20
- 장소 온라인 웨비나(Webinar) 진행(링크 추후 신청자 개별 전달)
- 신청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문의 DT&FS Tax 박한나 대리(02-2112-0921, hpark12@kr.kpmg.com)

A Culture for Trust and Growth

KPMG Values Refresh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된 우리의 새로운 5 Values는 우리의 긍정적이고
올바른 미래 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Integrity, Excellence, Courage,
Together, For Better로 구성되어 있다.

Integrity

We do what is right.

우리는 올바른 일을 한다.

Excellence

We never stop learning
and improving.

우리는 끊임없이
역량을 강화한다.

Courage

We think and act boldly.

우리는 진취적이고
담대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Together

We respect each other and draw
strength from our differences.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다양성으로부터 강점을 끌어낸다.

For Better

We do what matters.

우리는 사회와 미래를 위한
의미있는 일을 한다.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1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